

사례분석으로 본 여대생의 주거경험 연구

A study on the code's housing history through casework

안 옥 희*

An, Ok Hee.

김 순 경**

Kim, Soon 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ousing behavior through the code's housing history. The data were collected by open descriptive answering of 28 students in Y.Univers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code's housing history were changed by stages of family life. The greatest changes are in the stage of elementary school(3rd stage). Before the 3rd stage, living in out of town, detached house, rental house is to superior than town(Dae Gu), Apt., own house. And housing adaptation is to superior than housing adjustment. After 3rd stage go by contraies.

I. 서 론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주거라는 동지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주거와 삶은 그릇과 그릇속에 담기는 음식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그릇이 먼저인지 음식이 먼저인지를 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즉, 우리의 생활에 맞추어 주거환경을 경험하게 되는지 주거환경에 맞추어 우리의 주생활이 영위되는지를 한마디로 결정하기란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주거와 생활(삶)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하고 있다.

최근의 주거와 삶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에서는 가족주기에 다른 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주기에 중점을 둘 경우 흔히 현재의 가족주기가 신흥기, 가족확대기, 가족축소기 등 각 가족주기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각 주기별의 주요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같은 주기에 속하더라도 가족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주거환경특성은 다를 것이며, 특히 가족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해 온 주거환경을 검토하고 앞으로 요구하게 될 주요구에 대해 추측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적 분석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기간의 제한이나 연구되고 있는 동안의 사회적 배경의 변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학술박사

** (주)건축사 사무소 동우건축 연구원, 공학박사

화 등으로 이러한 방법은 상당 한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개인의 주생활사를 통하여 한 가족의 주거생활 변화과정을 분석하므로써 주거와 우리의 생활과의 관련성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주거규범의 일부를 보여주므로써 주택마련 척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주택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주거환경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 하게 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대상은 경북 경산시 Y대에서 주거학(1학년 개설과목)을 수강하는 80명의 대학생이다. 1995년 8월 28일에 연구자의 개인 주생활사를 샘플로 배부하고 "이 주생활사와 같이 자신의 주생활사를 연대별로 이어나 큰 개조 등 주거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라고 지시한 후 9월 1일에 회수 하였다. 서술상의 제한점은 전혀 없었으며 참고로 하기 위하여 현재의 가족사항을 따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서술내용은 A4 용지 4-5매 정도의 분량이였다.

회수된 80명의 사례중 대상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경험한 주거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1학년 학생(여성) 60명만을 대상으로 예비분석을 하였다. 가족주기 구분은 만자녀 연령과 학년에 따라 가족주기를 구분한 Duvall의 8단계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제 1차 예비분석에서 만자녀 국민학교 시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만이의 국민학교 시기를 중심으로 국민학교 이전기, 국민학교기, 국민학교졸업 이후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연령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경험한 주거환경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으므로 제 2차 분석에서는 만이, 중간, 막내의 출생순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주기구분의 큰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이(28명)의 경우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현재의 가족환경적 속성 및 주거특성은 학생생활기록부로 다시한번 파악하여

서술식의 주생활사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분석내용은 일반적으로 주거규범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공간, 소유권, 주거의 질, 주거비, 근린환경 중 본연구는 학생을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주거비 규범은 제외 하였으며, 또한 예비분석에서 근린환경에 대한 의식은 극히 희박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주거의 질은 여러변수로 측정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질 측정에 가장 기본(홍형욱, 1986)이 되는 방당 거주인수와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를 참고로 하여 난방시설, 욕실, 및 화장실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규범의 결합을 조절해 가는 주거조절행동으로는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방이용 행태, 주거 이동 및 증, 개축을, 일반적 특성으로는 주거소재지, 주택유형등을 파악 하였다. 또한 주거조절행태에는 포함 되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을 통하여 그 시기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 보았다.

III.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1. 과 같다.

표1. 일반적 사항

번	인	구분	N	번	인	구분	N
가족수	3명이하	1	부 학력	대졸이상	8		
	4명	9		고졸	9		
	5명	13		중졸이하	9		
	6명이상	3		부 직업	상.공업.서비스	10	
주택 소유형태	자가	26	사무직		14		
	타가	2	모 나이	45세이하	24		
생활정도 (주관적)	중상	2		46세이상	3		
	중	22	모 학력	대졸이상	2		
	중하	3		고졸	12		
부 나이	45세이하	4	모 직업	중졸이하	12		
	46-50세	20		유 무	7		
	50세이상	2		20			

2. 국민학교 입학 이전기

이 시기는 결혼에서 첫자녀 출생 부터 6세 까지

를 말하며, 다시 1)만자녀 3세까지의 제 1단계, 2)만자녀 3세-6세까지의 제2단계로 세분된다.

1)만자녀 3세까지(제 1단계)

Duvall의 구분에서는 만자녀 출산후 30개월까지가 제 1단계이나 본 연구에서는는 부부확립기를 포함하여 만이가 3세까지를 제 1단계로 한다. 이시기는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1974년 생이므로 사회적 배경은 '70년대 중반으로 추측된다. 제 1단계를 이경희 등(1995)의 주거생활주기로 본다면 주거 탐색기로서 결혼으로 가정은 형성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준비된 주택자금도 없어 주거규범과 거리가 먼 주거상황에서 생활하는 단계이다. 주거의 질 결함, 근린 환경 결함은 물론, 소유권 결함과 공간결함을 갖고 있으나 가족수가 많지 않아 공간 결함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다.

먼저 주거 소재지를 보면 대구인 경우는 총 28예 중 11예이며, 나머지 절반이상이 대구이외의 타지역으로 본조사 대상의 경우 가족생활의 첫출발은 대구 이외의 타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유형은 단 1예만이 아파트(사원 아파트)에 거주하며 나머지 27예 모두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1주택안에 2가구가 세들어 살거나, 조부모집에서 아직 분가하지 않은 상태로 같이 살고 있었다.

주택 규모는 방1칸에 부엌1칸 정도의 규모가 일반적이며, 자가로 소유한 경우에도 일부를 세놓은 형태로서 단독주택에 1가구만 살고 있는 예도 단 한예도 없으며, 6가구가 1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1예 있다.

방 이용 형태를 보면 대표적인 행태가 방 1칸에 가족 모두(부모, 3세 미만의 만자녀)가 이용하며, 부모, 동생, 할머니 그리고 만자녀 이렇게 5명이 한방을 쓰는 예도 있다. 방이 2칸이라 하더라도 각 방이 독립된 방이라기보다는 큰방의 중앙을 미닫이 문으로 하여 경우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방 1칸은 일하는 언니가 거처하고 있었다. 또한 방이 3칸인 경우에서도 할머니

와 같이 살거나 큰집식구, 고모, 삼촌들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들 가족은 방 1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시기의 주거의 질은 방당 거주인수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2.5명 이상이 되며, 침실 규범 역시 대개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한방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이는 새로 동생이 태어나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주거의 설비부분을 보면 연탄보일러 내지는 연탄 난방이 주류를 이루며, 취사도 연탄, 석유콘로 혹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 예도 있다. 독립된 세면실이나 목욕탕이 있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마당의 우물가나 혹은 수도(혹은 공동수도)에서 세면하며, 화장실도 집밖에 있거나 마당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거 이동 및 증·개축행태를 보면 이 시기 동안 이사를 한 예는 몇되지 않으며, 1번 이사한 예는 4예로서 이 가운데 2예는 자가 마련을 한 경우이며, 다른 2예는 아버지의 직장관계로 인한 이사이다. 2번 이사 한 예는 2예인데 1예의 경우는 부산에서 처음 가족이 형성된 후 아버지 직장관계로 거제도도 이사를 갔으며, 여기에서 동생이 태어나면서 방 수는 변화없이 규모면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큰 방을 구해서 마산으로 이시간 예이다. 또 다른 한 예는 처음 경북 상주의 할머니 댁에서 가족이 출발했으나 10달만에 아버지 직장관계로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1년만에 대구로 이사를 온 예이다. 결국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이사한 예는 1예 뿐이며, 이사의 주된 동기는 부친의 직장이동이었다.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기억)은 학생자신의 경우는 아직 어려서 집에 대한 별다른 기억을 들을수 없었으며, 다만 어머니에 의한 그 당시의 집 상황에 대한 느낌을 종합하면, "부엌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어서 거실에 손님이 계실 경우 거북스러웠다", "집안에 가구가 없어서 집안분위기가 딱딱했다" "마루 밑 아궁이에 불을 때야 하므로 집이 높았다", "화장실이 집밖에 있어서 불편했다", "방의 위풍이 너무 세어서 겨울에 방에 물을 떠놓고 잠자면 밤사이에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웠다",는 등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1 단계의 주거생활은 대개의 경우 방 1칸, 부엌1칸의 주택규모에 한 가족 모두가 거주하며, 가족유형이 대가족인 경우에도 가족의 방이용 행태는 큰 차이 없이 방 1칸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2) 3세-6세(제 2단계)

이 시기는 만자녀가 3세에서 6세로 성장하는 시기로 '70년대 후반에 해당된다. 대체로 이시기에 동생이 출생하고 자녀성장에 따른 공간요구가 증가하여 주거공간 이용에 변화가 일어나는 주거변동기라 할 수 있다.

먼저 주거 소재지는 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현 거주지인 대구보다는 타지에서 살고 있는 예가 더 많다.

주택 유형은 역시 아직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며, 이사를 몇번 가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며, 아파트로 이사한 예는 단 2예 뿐이다.

주택 소유권도 앞의 1단계와 같이 자가보다는 타가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고 이시기에 자가를 마련한 예는 5예 뿐이다.

주택 규모는 1단계에서와 같이 방 1칸에 부엌 1칸이 대표적이며, 이때 방의 크기가 1단계보다 조금 더 커졌다는 예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외 방 2칸에 마루가 있는 예, 그리고 방 3칸, 방 4칸, 방 5칸인 경우도 있으나 한가족이 이용하는 방1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를 주고 있거나, 앞의 1단계에서와 같이 대가족의 경우 조부모 및 결혼하지 않은 삼촌, 고모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가족은 방1칸을 이용하는 예가 가장 일반적이며, 방 2칸 혹은 방3칸을 이용하는 예는 2-3예 정도 있다. 결국 주택전체 방의 칸수면에서 늘어나는 듯 하나 이는 한가족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세를 주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 이용 행태를 보면 방 1칸의 경우는 가족 모두(부모, 3세 미만의 첫자녀 그리고 동생이 있는 경우도 모두 함께)가 이용하며, 방 2칸이라 하더라도 큰방이 주된 생활공간이며, 작은방은 공부방 또는 놀이방으로만 이용하며 늘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거의 질을 방당 거주인수에서 보면 1단계의 경

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침실 규모 역시 대개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한방을 공유하는 형태이고, 주택설비 부분 역시 앞의 1단계에 비해서 큰 변화나 진전이 없다.

이시기 동안의 주거 이동 및 증·개축행태를 보면 앞의 시기에서 보다는 다소 활발하여, 적극적인 주거조절행동으로서 이사를 하거나, 또는 주택을 증·개축한 예가 보인다. 이사의 경우 주된 동기는 물론 부친의 직장이동으로 인한 이동이나 가족구성원의 변화(할머니 사망, 삼촌 합가, 분가)에 의한 이동도 몇예 나타나기 시작 한다. 또한 아직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없으나 앞으로 태어날 동생방을 대비하여(엄마의 임신사실에 기해서) 현재의 집보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다. 그외 큰아버지의 부름,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이사하게 된 동기들이고, 특이한 예로서 만자녀의 심한울음(선천성 간기증)으로 병고치기 위해 시골로 들어 갔다가 병을 다 고친 다음 다시 대구로 나온 예도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강제이동이 아닌 유도이동의 경우 기존의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세를 들어 살거나 세를 준 경우 이웃과의 친분이 강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왕래를 하거나 연락을 서로 한다는 것이다. 개조 및 증축의 경우를 보면, 다락방을 개조하여 부엌과 식당으로 만들어, 이전까지 안방에서 하던 식사를 식당에서 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TV까지 놓게 되어서 안방에서의 가족단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안방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증축의 예로서는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우리가족이 독립된 방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방을 1칸 지어주셨으며, 이와 함께 외양간 1칸, 화장실, 곡식 저장고용의 큰창고를 증축하였고, 기존의 손님방을 아기방으로 바꾸는가 하면 이방에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아기침대, 아기 옷장이 들어오고, 마당에 그네까지 설치해 주셨다"는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가족의 주거공간 이용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연구대상자가 여자로 만자녀인데 그 동생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반응

이 주거조절로 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은 앞의 1단계 보다 는 좀 더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마당이 넓었다", "화단에서 아빠와 꽃밭 다듬었다", "그저 아담하고 예뻐다" "동생과 주인집 담벼락에 낙서하다가 어머니에게 혼났다", "야구놀이 하다가 유리창을 깨어 밤새도록 벌셨다" 등의 집안밖에서 장난치며 놀다가 다친 기억이 주류를 이루며, 연탄가스중독의 경험도 1예 있다. 또한 부엌에서 머리 감다가 세수대야와 함께 구른일, 지하실에서 숭바꼭질하다가 갇힌 기억, 유치원 시절 내친구가 오면 동생이 내친구를 다락방에 가두었던 일, 부엌에서 목욕한 일, 그리고 "고종언니와 함께 한 방 이용이 싫었다"는 등의 기억들로서 앞 단계보다는 주택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으며,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상, 제 2단계의 특징을 종합하면 1단계와 비교해서 이사 경험이나 증개축의 경험은 확대되지만, 방 이용행태나 주거의 질적 측면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1단계 보다 주택규모면에서 전체적인 확대는 아니나 방의 규모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경향과 자가 확보율이 조금 증가해 간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경우 이시기동안의 이사횟수는 1번에서 최고 3번까지로서 증 개축행태보다는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조절행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 국민학교기(7-12세, 제 3단계)

이 시기는 만자녀가 국민학교를 다니는 시기로서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주거행동이 가장 활발하며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시기는 주거소유권은 확보된 비교적 안정 상태라 하겠으나 주거공간 및 주거의 질이 주거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본 조사에 의하면 소극적 주거적응이나 증개축의 행태보다는 적극적인 이동으로서 주거결함을 조절해 가는 예들이 더 많으며, 구체적 생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 소재지는 앞의 1·2단계에서 거주하던 타지역 보다 대구가 더 많으며, 이로서 만자녀가 3세

이상 되면서부터는 점차 현 거주지인 대구로 이동하여 거주지면에서는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유형은 여전히 단독주택이 절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앞의 1·2 단계와 달리 아파트로 이사 온 예도 28예중 6예 있으며, "나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친구가 몹시 부러웠다."는 예로봐서 이당시(1980년 중반기)에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된 듯하며, 대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으나 집안 형편상 세를 주거나 세를 들어 살아야 하기때문에 단독주택에 적응하며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주택 소유형태는 공상주택의 경우를 포함하여 절반 이상인 16예가 자가를 마련하였으며, 조부모댁에서 아직 분가 하지 않은 집은 한예도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한 예와 또한 할아버지의 건강악화로 분가하여 있다가 다시 합가하는 예가 있어 가족생활의 주체가 아버지 세대로 완전히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형태는 대체로 상승이동하나, 아버지의 사업실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하락이동을 한 예도 있다.

주택 규모는 자가인 경우 1층에서 부터 3층까지의 규모로 확대되며, 방수도 1칸에서 5칸까지 확대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가족이 쓰는 방 1칸 또는 2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3층집의 경우 1층 및 2층은 세를 주고 3층도 1/2은 세를 주고 1/2만의 공간을 우리가족이 이용하며, 이층집의 경우도 1층전부 또는 2층 전부를 세주며, 단층의 경우도 집의 일부를 세주고 있다. 즉 전반적인 주택 규모는 늘어났으나 이는 한가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를 주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이며, 또한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여서 방의 수를 늘리는 경우도 한 가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를 주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시기에 자가이면서 1가구만 살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을 정도이며, 2가구이상 심지어 6가구가 한주택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부엌은 각 세대마다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목욕탕 및 화장실은 공동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 이용 행태를 보면 아직 방 1칸에 가족 모두가 거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녀에게 독방을 준 예가 5예(만자녀 8-11세)있으나 완전히 독립된 방 이용이 되지는 못하고 형식상으로만 '내방'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8세부터 내방을 가지게 되었으나 무섭다는 이유로 동생들과 함께 지냈다.", "9세때 내방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남동생이 자주들어왔다.", "다락방을 내방으로 이용하였는데 형식상 내방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동생의 놀이방으로 쓰였다"라는 예를 볼 수 있다.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비록 주거의 규모는 커졌으나 실제적 한가족이 이용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여전히 방 1칸을 이용하는 예가 많은 편이며, 조금 넓어진 경우 방 2칸 정도이나 동생이 태어난 것을 감안 하면 방당 거주인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시기의 주거의 질은 방당 거주인수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2.5명 이상이 되며, 침실규범 역시 부모와 자녀가 한방을 공용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또한 주택의 시설면에서도 여전히 화장실이 실내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한 수세식이 아닌 퍼내기식으로 되어있다. 한 예에서는 화장실이 없어 교회 화장실을 이용한 예도 있다.

주거 이동 및 증개축행동을 보면 그 어느시기보다 이사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를 한번 정도 했거나 이미 이전 단계부터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2번이상 최고 5번째 까지 이사한 예가 있는 등 이시기 동안은 여러번 이사를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의 이사는合家에서 분가, 혹은 시골에서 대가로 나오는 경우이며, 방의 규모가 조금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방의 칸수가 1칸 늘어난 2칸 혹은 3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주류이다. 2번이상 3번, 4번의 경우의 이사 동기는 자가마련이 가장 많으며, 보다 큰방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방 2칸의 집 또는 방 3칸의 집으로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때 이시기의 주거이동은 자가마련을 포함하여 가족구성원이 늘어 남으로 인한 주거 규모의 확대가 이주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며, 또한 재산 증

식의 수단으로서 이사를 하는 것도 주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특이한 예로서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혹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한 주거규모 축소의 예도 2예 볼 수 있으며, 자가를 신축 하는 동안 임시거처로서 잠시 머물기 위한 이사의 경우도 3예 있다. 그 외 학군때문에 거처를 옮긴 경우도 1예 나타나므로 해서 이시기 부터 자녀교육이 이사의 동기가 되고 있음에 주목된다.

전반적인 주택에 대한 감정은 '내방'에 대한 기억은 "나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친구가 몹시 부러웠다."와 앞의 1, 2단계에서와 같이 세를 준 경우 이웃과 매우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몹시 섭섭하다는 것 뿐이며, " '내방'이 없어 큰방에서 식구가 다 모여서 생활하였는데 '내방'이 있는 친구가 몹시 부러웠다." " '내방'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남동생과 한방을 이용하면서 자주 싸움을 하였다" "동생과 한방이 싫었다.", "남동생을 안방으로 보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등으로 봐서 주택전반에 대한 기억 보다는 오히려 '내방'에 대한 기억으로 그 범위가 축소 되면서 '내방'에 대한 의식에 강해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재미 있는 현상은 '내방'의 규모에 대한 기억으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좁았을 것 같은데 그때에는 왜 그렇게도 넓어 보였는지...", "우리 방은 부모님의 방인 안방보다도 더 컸던 것 같다"와 같이 '내방'의 규모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기억하고 있다.

4. 국민학교 졸업 이후기

이 시기는 첫자녀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에서부터 현재 시기인 대학시기 까지를 말하며, '8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해당된다. 이시기는 시간적으로 1)중학교기, 2)고등학교기, 3)대학교기(현재)의 3단계로 세분되나, 대학교기는 피조사자를 대학교 1학년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짧고 현재의 주거환경조건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시계열적 검토의 시기로는 적합하지 않아 생략하기로 한다. 중학교기와 고등학교기의 주생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기(제 4단계)

만자녀의 중학교 시기는 제 3단계와 같이 주택 소유권 확보는 된 상태이나 주거공간 및 질 규범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근린환경규범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 단계의 국민학교 시기보다는 이동 횟수가 적으며 보통 1번 혹은 최고 많은 경우 2번 정도로서 비교적 안정된 시기이다. 따라서 이시기는 주거 안정기로서 주거 규모 확대기 또는 주거의 질 향상기라 하겠다.

주거 소재지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 거주지인 대구 또는 대구 근교(하양 또는 경산)로서, 거의 안정적인 주거지가 결정되는 듯하다.

주택 유형은 여전히 단독주택이 우세한 편이며, 새로 자가를 마련한 경우 아파트 1예, 임시거처의 경우 아파트 2예, 그리고 이미 이전단계에서 아파트 거주 6예를 포함하여 전체 아파트 거주는 9예이며, 나머지는 모두 단독주택이다. 이와같이 단독주택이 우세한 이유는 우선 앞의 1, 2, 3 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세를 줄 수 있거나 세들어 살기에 단독주택이 유리하다는 장점이외에 가족의 주거조절행동의 제약요소로서 가족중(특히 남주인) 누군가가 특별히 아파트 거주를 불안해 하거나 땅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몹시 꺼리는 경향이 있음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집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었으나 집을 새로 짓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 이 기간동안 아빠가 내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셨고, 아빠는 땅을 그리워하고 공중(8층)에 떠있는 것을 불안해 하셨다. 그래서 결국 한옥으로 이사 갔으며 이때 우리는 길일을 잡고 고사까지 지냈다"라는 사례가 있다.

주택 소유는 앞의 3단계에서 자가인 경우 16예를 포함하여 이시기에 새로이 자가를 마련한 5예를 더하면 전체 자가의 수는 21예로 이제는 타가보다 자가의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학교 후반 또는 중학교 시기에 자가마련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주택 규모를 보면 집의 전체 규모가 더 커졌음은 물론, 가족이 이용하는 방의 칸 수가 늘어났다는 특징을 보인다. 보편적인 방 칸수는 3칸이며, 많게는 4칸, 5칸까지, 적게는 2칸으로서 이제 방

1칸에 가족 모두가 거처하는 예는 단 한 예도 없다. 특이한 형태로 방의 이용행태면에서 방 1칸은 공부할 때만 이용하고, 일상적 생활은 거의 안방에서 한다는 예가 1예 있으나 대개의 경우, 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어도 2칸 정도는 되었다.

이 시기 방 이용 행태의 특징적인 것은 앞단계와는 달리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부모와 자녀의 방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칸의 방을 소유한 주택에서는 2칸의 방이 있는 집으로 또는 3칸의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거나, 혹은 그동안 세 놓았던 방들이 있는 경우 세든 가족들을 내보냄으로써 "우리가 이집 전체를 이용하게 되었고 우리 형제는 모두 각자의 방이 생겼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들에게 독립된 방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방이 2칸인 경우 큰방은 부모가, 작은방은 자녀들이 이용하는 행태가 보편적이며, 3칸인 경우에도 큰방은 부모가 이용하고 작은방을 자녀들이 나누어서 이용하는데 이 때의 이용행태는 가족 구성의 성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동성의 형제라면 나이순으로 독방을 주고 있으나 중간에 이성형제가 있으면 이성형제에게 독방을 주고 동성형제끼리 한방을 쓰는 게 보편적이나, 이때 제일 나이가 많은 누나의 경우는 방 배정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여 방때문에 남동생과 다툰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주거의 질적인 면은 방 1칸당 거주인수면에서 보면 평균 방 1칸에 1.5인 정도로 낮았으며, 주택 설비 또는 시설면에서는 이사를 하거나 혹은 개조하여서 연탄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로 바뀐 예가 많으며, 단독주택에서도 수세실 화장실 및 목조가 있는 목욕탕이 등장한다.

주거 이동 및 증·개축행태는 앞단계의 국민학교 시기에 비하여 이동 횟수는 적은 편이며, 오히려 증·개축 혹은 방이용의 전용(專用) 및 규범적 적응을 통하여 주거결함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사의 경우는 처음 이사하는 예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이미 여러번 이사를 거쳐 이 시기에는 2번이상 6번째까지의 이사경험이 있는 가족들로서 이 시기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 동기는 여전히 자가마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직장으로 인한 유도시동이며, 그외 집을 신

축하는 동안 잠시 머물기 위한 이동 등이며 주거 조절이동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앞의 시기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자녀교육문제로서 이사한 예가 3예정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앞의 3 단계에서부터 자녀교육으로 인한 이동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이시기에 와서는 자녀교육과 주거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시기로 해석된다. 증개축의 경우는 재래식 부엌을 서양식의 입식으로,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개조하거나 실내의 화장실을 하나 더 증축하는 예가 일반적이며, 또 다른 예로서 마루에 샷시문을 달므로서 생활공간을 넓히는 경우이다. 그 외 방이 길었기 때문에 방 가운데 여닫이문을 달아 동생과 딸자녀가 각각의 방을 쓸 수 있도록 한 예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화장실 갈려면 동생이 내방을 거쳐야 하는 것이 몹시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나머지의 경우는 "집이 더 넓어지고 또 편리해졌다. 그리고 여러 가구가 살 때처럼 화장실이나 샤워장의 불편함도 없어지고 서로간의 간섭도 없어졌으며 훨씬 독립적으로 되었다"며 만족해 하였다. 방이용을 전용한 예로서는 자녀에게 독립된 방을 주기 위하여 거실을 중학생이 된 남동생의 방으로 전용한 예를 들 수 있으며, 규범적 적응의 경우는 "지금의 우리집은 골목길이 조금 무섭기는 하나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만족하므로 특별히 아파트 같은 집합주택으로 옮기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나도 침대를 사달라고 졸랐다. 침대는 보기에도 좋고, 부럽고, 이불을 안 개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사지 않을 것이다. 이불은 안 개면 되고 내방이 좁으니까 침대가 들어오면 더욱 좋아지겠으며, 그의 필요한 물품은 다 있으니까," "그후 식탁을 사면서 쇼파도 사자고 졸랐으나 지금 생각하면 안 사기를 잘했다. 우리집은 계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만약 쇼파를 샀다면 이고 지고 옮기고 한다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하니 안 사기를 잘했다. 식탁도 참고신세를 지고 있으니....."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은 "이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뿐이어서 아침마다 불편하다", "화장실 갈려면 동생이 내방을 거쳐야 하는 것이 몹시 불

만스럽다." "집이 더 넓어지고 또 편리해졌다. 그리고 여러가구가 살 때처럼 화장실이나 샤워장의 불편함도 없어지고 서로간의 간섭도 없어졌으며 훨씬 독립적으로 되었다" 등과 같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주로 "내방이 햇볕이 잘 안들어 답답하여 큰방에서 주로 놀았다"에서 처럼 나와 관계가 있는 제한된 공간에 대해 주로 관심을 두고, 전반적인 주생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고등학교기(제 5단계)

만자녀 고등학교 시기는 거의 안정된 시기로서 주택 소유권이나 공간규범에 의한 조절행태 보다는 투자가치,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지위표출욕구 등 사회적 욕구에 의해 주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의 질 및 근린환경규범 또는 심미적 가치조절을 위한 행태가 주류를 이루며 중학교 시기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주거 소재지 역시 거의 대가로 되어있다.

주택 유형은 이 시기동안 새로 아파트로 이사한 3예를 더하면 모두 12예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여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점차 아파트로 이주해 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주택소유형태는 전세 한 예를 제외하고 27예 전부 자가 소유로서 자가 소유율이 처음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주택 규모도 처음 가족형성기의 3-4배정도로 확대되어 평균 방수는 3-4칸 정도이다.

주거의 질적인 측면도 앞의 시기들에 비하면 상당히 향상되어, 대개의 경우 수세식 화장실, 욕실을 갖추며, 난방은 기름 혹은 가스가 주연료이며, 취사의 경우는 거의 전부에서 가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방 당 거주인수도 평균 1.5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 이용 행태는 대개 부모와 자녀간의 방이용은 독립적이고, 자녀들간의 방이용은 중학교 시기와 큰 차이 없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름과 겨울에 있어 방 이용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춥지 않기 때문에 즉 냉방으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서 집안의 모든 방을 다 이용하나, 겨울에는 기름 절약을 위해서 남동생(중학

생)방은 불을 안넣고 부모님방에서 함께 생활한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을 고려한 방 이용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이동 및 증·개축행태는 이사경험횟수로 보아서 대개 총 5-7번째이나, 이 시기동안 이사진 횟수를 보면 1번을 넘지 않는다. 즉, 앞의 중학교 시기와 같이 이동보다는 개조를 하거나 적음을 하는 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이동의 경우 아버지의 직장관계로 교통이 불편해 1년쯤 살다가 다시 사원 아파트로 이사가 1에 있으며, 독특한 예로서 혼자 계시는 할머니께서 적적해 하시므로 함께 살기 위한 이사형태도 있다. 그 외 앞의 중학교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자녀교육과 주거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에 와서는 공부때문에 대구에서 자취하거나 외가 등 친척집에서 학교 다니는 예 등 유학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개조의 예로서는 “내방은 좁아서 불만이었기에 불박이장을 헐어서 넓게 했다”. “식구에 비해 방 수가 모자랐으므로 방1칸을 새로 증축하고, 또 방1칸을 부엌으로 하여 부엌을 확대하였으며, 창고방도 증축하였다”, “나의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을 개조하려다가 집 전체를 3층으로 개조했다”. 를 들 수 있으며, 전용의 예로서는 “동생방이 너무 좁아서 동생은 거실에서 자고 동생방은 창고로 이용 했다.”등이 그리고 적용의 예로서 “우리집은 집 크기에 비해 가구가 너무 많아 가구배치를 새로 하였다”, “... 그러나 고등학생인 남동생은 거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별 불만 없었다”. “세 놓은 1층의 방을 우리가 하나 더 쓰고 싶으나 1·2층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더라도 2층만을 이용한다” 등이 있다.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은 “아파트의 1층이라 사생활 침해가 많았다”. “아파트 이웃단절이 논란되고 있으나 우리 아파트는 예외이다”. “방이 3개인데 불편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 불만이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늘 불만이었다” 등의 주거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내방이 더 커졌다. 그러나 창문이 너무 커서 앞집과 마주 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열지를 못하는 것이 단점이었다”. “내방은 햇볕이 안들고,

통풍도 잘 안되어 동생이 내방 출입을 거의 안할 정도였다”와 같이 “내방”에 대한 기억으로 나뉘어지며 “이 때의 우리집이란 거의 잠만 자는 곳이었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고등학교시기는 입시관계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인지 자신의 방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도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 결과를 가족 주기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가족주기 단계별 주생활의 특징

가족주기단계 주거 특성	국민학교 입학이전기	국민학교기	국민학교 졸업이후기
주거소재지	타지역(현거주지)	타지역(현거주지)	거의 현거주지
주택유형	단독주택이절대적	단독주택 더 많다	공동주택 점차 증가
주택소유형태	전세 또는 분가전	자가화보(세를 중)	자가(독채)
주택규모	방1칸, 부엌1칸	방2칸, 부엌, 마루	방3칸, 4칸, 부엌, 마루
침실규범	부모자녀 공용	자녀 일부 독방	자녀 완전 독방
주거의 진 난방 취사 화장실	2.5인/방1 연탄 외부 화장실	2.5인-1.5인/방1 연탄, 기름 외부 화장실	1.5-1.0/방1 연탄, 가스 내부 화장실, 욕실
주거조절행태	규범적 적용	주거이동	증, 개축
주거에 대한 진반적 감정	별 기억 없다	내방에 대한 불만 옛친구 이웃 기억	대체로 만족

즉, 주거 소재지는 국민학교 입학 이전기까지는 대구이외의 타지역 거주자가 현지역 거주자보다 많았으며, 가족주기가 진행될수록 현 거주지로 이주해오고 있다. 이는 결혼이후 주거이동을 할수록 서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으로 밝혀진 김대년(1992 a)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현상이며, 또한 생애주기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도심외곽에서 시청 가까이로 이동한다는 최미라·박강철(19945)의 연구에서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주택유형의 변화과정을 보면 국민학교 입학 이전기까지는 단독주택이 거의 절대적이다가 가족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아파트 거주가 늘어간다.

이는 김대년(1993. a)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인데 그는 이러한 현상을 주택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유형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1980년 이후 아파트가 갑자기 양적으로 확대되어 공급된 당시의 주택정책적인 문제도 물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한편 가족주기에 의한 영향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결혼초기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자가를 확보할 형편이 안되므로 세들어 살기 좋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다가 점차 가족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세를 주지 않고 독립된 1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주택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가족형성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전부가 세들어 살거나 아직 부모님 댁에서 분가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가족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자가를 마련해 가며, 딸자녀가 국민학교 후반기에서 중학교 시기가 되면 거의 모든 가족에서 자가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딸자녀가 국민학교 시기까지는 자가를 확보하더라도 한 가족이 쓰는 방 수는 2칸 이상이 넘지 않으며, 나머지 모든 방을 세를 놓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즉, 자가확보율은 가족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지만 딸자녀 국민학교 시기까지는 1가구에 1주택이 거주하기보다는 1주택 2가구 이상거주 하는 예가 많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여대생인 관계로 비교적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평균 이상이라는 점에서 자가를 확보하는 기간이 평균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규모는 가족형성기에서 딸자녀 국민학교 입학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가족에서 방1칸, 부엌1칸이다. 이러한 상황은 딸자녀가 6세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규모가 조금 더 커진 방으로 이동하는 예가 보이기 시작하나 방 수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국민학교 시기가 되면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서 방 수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는 세를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방수에 있어서는 큰 변화없이 1칸 혹은 2칸으로 대개의 경우 부모자녀가 방 하나를 공용한다. 중학교 시기 이상이 되면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방수는 대개 2칸 이상에서 3칸으로 되며 방 1칸에 가족 모두가 거처하는 예는 없어진다. 이는 주택 규모

는 주거이동 횟수 또는 당시대적 상황보다는 가족주기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대년(1992 b)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도 같은 현상이다.

주거의 질을 방당 거주인수로 보면 가족형성기에서 국민학교 시기까지는 방당 거주인수가 2.5인을 넘다가 중학교 이후기가 되면서 1.5인으로 줄어든다. 난방시설은 가족형성기에는 나무인 경우도 몇에 있었으나 국민학교 시기까지는 연탄이 주류를 이루며 중학교 이후기가 되면서 기름 및 가스가 등장한다. 욕실 및 화장실은 가족형성기에는 욕실은 거의 없으며 세면 및 화장실은 외부 세면장을 이용하거나 마당에 있는 공동수도 그리고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자가를 확보하는 국민학교 시기에도 변화없으며, 중학교 이후 시기가 되면서 아파트 거주 경우 내부 욕실 및 화장실로 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외부화장실이며, 욕조가 있는 욕실은 아예 없다.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단독주택이라도 내부화장실 및 욕실이 있는 주택이 등장한다. 이는 가족들의 주거규범상의 문제라기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조절 행태는 가족형성기에는 이동보다는 규범적 적응행태를 주로 보이다가 2단계가 되면서 서서히 이동의 행태가 주류를 이루면서 국민학교 시기는 주거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중학교 시기 이후에는 이동 보다는 증개축의 행태가 더 많다. 고등학교 시기에 오면 다시 적응의 행태로 바뀐다. 또한 주거 이동행태만을 볼때 이동의 주된 동기는 내집마련을 위한 이동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부친의 직장관계로 인한 이동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년(1992. a)의 연구와는 같은 현상이나 주거이동의 동기가 생활의 편리성과 경제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최미라박강철(1995)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한 것은 직장관계로 인한 이동이 아닌 경우 이동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대부분의 경우 어린시절의 주택에 대한 느낌은 기억

참고 문헌

이 없었다. 국민학교시기의 기억으로는 우리집 전체보다는 주로 내방을 갖지 못하거나 형제자매와 공용하는 '내방'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며,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다는 기억이 주류를 이룬다. 한편 중학교 이후 현재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불만보다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주거조절행태에서 적응의 행태가 주류를 이루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신혼기에서 만자녀가 6세 되기까지의 시기에 대개 방 1칸, 부엌 1칸으로 자가가 아닌 단독주택의 셋집에 살고 있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주택업계의 유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대형위주의 아파트 건축에 주력하기보다 신혼부부 내지는 만자녀 유치원기시기까지의 가족이 선호할 수 있는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소규모 공공 임대 아파트 보급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2. 만자녀가 중·고등학교기이상의 시기가 되면 주거이동보다는 증개축행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규모가 확대되는 확대기 가족을 위한 주택에서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주거공간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형주거설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겠다.
3. 본 연구결과로 보면 주민들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세 들어 살거나 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넓은 평수에서는 1가구이상이 생활하면서 세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확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어린시절 같이 산 이웃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린관계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인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및 단지계획을 할 때 최대한 이웃관계를 고려하고 이를 위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김대년, 홍형욱, "주거생활주기 모형설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1990.
2. 이경희·윤정숙·홍형욱, 「주거학 개설」, 문운당, 1995
3. 이경희, "도시가구의 주거이동 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1호, 1984.4.
4. 홍형욱,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6
5. 최미라, 박강철, "주거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8호, 1995. 8.
6. Morris, E.W., and Winter, M., *Housing, Family and Society*, N. Y: John Wiley and Sons, 1978.

